KOREATECH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27학년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수시모집
모의 논술고사 문제지

시험과목	자료제시형 언어논술		
문제유형(시간)	80분		
지원학부(전공)	학부•과(전공)	성 명	
수 험 번 호		생년월일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 안내사항 -

1. 본 문제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출제경향 제시를 위한 온라인 모의논술고사 문제입니다.
2. 80분 이내에 답안지 최종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3. 답안은 **검정색 볼펜**으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수정은 두 줄로 긋거나 수정테이프를 활용하세요.
4. 문제별로 **1면 이내에 답안을 작성하여 개별 업로드** 해주세요.
5. 이미지 해상도가 낮거나 답안지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채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문의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입학팀 ☎041-560-1236

문항 1~5

[배점 : 50점]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가) 국제 사회는 한 국가의 영역을 넘어 여러 행위 주체들이 상호 작용하는 공간이다. 가장 기본적인 행위 주체는 국가이다. 국가는 주권을 바탕으로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외교, 조약, 군사적 대응 등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러나 세계화가 보편화된 오늘날의 국제 문제는 국가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 국제연합(UN)과 같은 국제기구는 분쟁 당사국 사이의 협의와 중재를 돕고, 난민 보호, 인도적 지원, 평화 유지 활동을 수행한다. 비정부기구는 개인이나 민간단체 주도로 만들어진 조직으로 전쟁 피해자 구호, 인권 침해 감시, 환경 보존 등 인류 공동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다. 다국적 기업도 국제 사회의 중요한 행위 주체이다. 여러 국가에 걸쳐 원료를 조달하고 생산과 판매를 수행하며, 분쟁 지역과 관련된 거래, 노동권 침해, 자원 조달, 공급망 관리에서 책임 있는 판단이 요구된다. 개인과 시민사회 역시 평화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시민은 기부, 자원봉사, 여론 형성, 윤리적 소비 등을 통해 국제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다.

(나)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뜻하지 않는다. 전쟁이나 테러와 같은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 평화라고 한다면, 정치적 억압, 경제적 착취, 사회적 차별, 빈곤과 같은 구조적 폭력까지 줄어든 상태는 (ⓑ) 평화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은 이러한 평화의 상실을 보여준다. 군사 침공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주거지, 학교, 병원, 식수, 전력 시설, 교통과 같은 생활 기반을 파괴한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피난민이 늘어나고, 가족과 공동체가 흩어지며, 교육과 노동의 기회도 줄어들게 되며, 이러한 피해는 전투가 끝난 뒤에도 오래 지속된다. 결국 강대국의 일방적 침탈은 특정 영토를 점령하거나 파괴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피해국 시민의 일상, 권리, 미래의 삶을 함께 무너뜨린다.

(다) 평화학자 요한 갈퉁(Johan Galtung)은 폭력을 물리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으로 세분화하였다. 첫째, 물리적 폭력은 행위자가 의도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행하는 폭행이나 전쟁, 무력 분쟁과 같은 파괴행위이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침공, 폭격, 민간인 피해는 이러한 물리적 폭력에 해당한다. 둘째, 구조적 폭력은 사회 제도, 법, 관습, 경제 구조, 정치 등이 사람들의 삶의 기회를 제한하고 고통을 일으키는 간접적이면서도 체계적인 폭력을 의미한다. 갈퉁에 따르면, 폭력은 타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통해서도 일어나지만 사회 시스템에 의하여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일어난다. 전쟁으로 인해 피난민이 자국을 떠나 살면서 교육과 의료적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내전 등으로 인해 특정 집단이 정치적 권리와 생계 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과 물리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신념, 언어, 종교, 예술, 역사 해석 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가 특정 민족이나 국가를 열등하거나 위험한 존재로 묘사하고, 침략을 안보나 정의의 이름으로 정당화한다면 이는 문화적 폭력으로 볼 수 있다.

(라) 위험사회 이론을 제시한 울리히 벡(Ulrich Beck)은 현대사회가 발전할수록 인간이 만들어 낸 위험도 커지고, 그 위험이 국경을 넘어 확산된다고 보았다. 산업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에게 풍요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기후위기, 핵위험, 감염병, 금융위기, 환경 오염처럼 특정 국가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위험을 만들어냈다. 전쟁 역시 현대 위험 사회의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과거에는 전쟁의 피해가 주로 전투 지역과 주변 국가에 집중된다고 생각하기 쉬웠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에너지, 식량, 금융, 산업, 노동, 군사 안보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한 지역의 전쟁이 전 세계의 불확실성으로 확산된다. 위험사회 이론의 관점에서 현재의 전쟁은 분쟁 당사국 사이의 충돌이면서 동시에 세계 시민이 함께 감당해야 하는 복합적 위험이다. 따라서 평화는 전쟁을 멈추는 것만이 아니라, ㉠ 전쟁이 만든 위험이 사회적 약자와 취약 국가에 집중되거나 부과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문제를 포함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울리히 벡은 산업화와 과학기술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제도와 발전 방식의 위험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해 바꾸어 가는 성찰적 근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마) 요한 갈퉁의 세 가지 폭력론과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 이론은 모두 현대 전쟁을 단순한 군사 충돌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미국-이란 군사 충돌과 같은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은 단순히 전투 지역에서의 무력 충돌과 민간인 피해에 국한되지 않는다. 상대를 절대적 위협으로 규정하는 언어, 제재와 봉쇄로 인한 생활 조건의 악화는 갈등을 장기화할 수 있다. 동시에 에너지 가격, 물류, 금융시장, 난민 문제의 변화는 다른 지역의 사회와 경제에도 불안을 초래한다 . 그러므로 평화를 논할 때, 직접적 충돌뿐만 아니라 갈등을 지속시키는 인식과 제도, 그리고 그 파급효과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1) (나)의 ⓐ와 ⓑ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각각 적으시오. (5점)

(2) <보기>의 밑줄 친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개념을 (다)에서 찾아 2어절로 적으시오. (5점)

<보기>

일제강점기의 조선은 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조선총독부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다. 일제는 헌병 경찰을 앞세운 무단통치를 실시하였으며, 보안법(保安法)을 제정해 일본은 조선인들의 집회와 결사,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였다. 그들은 조선인들의 문서 게시나 언행을 단속하고, 정치에 관한 집회를 금지하여 대한협회, 서북학회 등을 해산시켰으며 그 이후에도 모든 정치결사, 집회가 금지되었다.

(3) (마)를 참고하여 (다)와 (라) 각각의 입장이 현대 전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서술하시오. (175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10점)

(4) <보기>를 참고하여 (라)의 ㉠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175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10점)

<보기>

파키스탄 북부에 올여름에도 비가 쏟아지며 최소 344명이 사망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물과 함께 수십 톤의 바위가 쏟아져 주택과 학교 건물이 무너졌고, 주민과 가축, 차량이 홍수에 휩쓸려갔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약 80%를 차지하는 반면, 파키스탄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0.52%를 차지하는 청정국이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매년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5) (가)~(라)를 참고하여 <보기>의 사회가 진정한 평화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를 서술하시오. 단, ① <보기>의 평화 상태에 대한 진단, ② 구조적·문화적 폭력 개념과의 연결, ③ 위험사회에서 개인이 해야 할 역할을 포함하시오. (450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20점)

<보기>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에 등장하는 미래 사회는 전쟁, 빈곤, 심각한 갈등이 거의 없는 안정된 세계처럼 보인다. 사람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계층과 역할에 맞게 길러지고, 성장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와 생활방식에 만족하도록 교육받는다. 국가는 불안과 고통을 줄이고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감정, 욕망, 관계, 직업 선택을 관리한다. 사람들은 즉각적인 쾌락과 소비를 통해 불만을 잊고, 사회가 정해 준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이 사회는 스스로를 평화롭고 행복한 사회라고 설명하지만, 시민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성찰하고 선택하며 기존 질서에 의문을 제기할 자유를 잃어간다.

답안 및 해설 등 문항카드 정보

[출제범위] 통합사회

[핵심개념 및 용어] 평화, 전쟁, 폭력, 세계화,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 국제 협력

[예상 소요시간] 40분

[출제의도] 국제 사회의 다양한 행위 주체와 평화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현대 전쟁이 단순한 군사 충돌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삶, 국제 질서, 사회적 약자와 취약 국가의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요한 갈퉁의 세 가지 폭력론과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 이론을 활용하여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분석하고, 문학 작품에 나타난 통제 사회의 사례를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문화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출제근거]

가) 교육과정 및 관련 성취기준

<table>
<tr><td>적용 교육과정</td><td colspan="3">교육부 고시 제 2018-162호「별책7」"사회과 교육과정"</td></tr>
<tr><td rowspan="3">관련 성취기준</td><td colspan="2">과목명: 통합사회</td><td>관련</td></tr>
<tr><td>성취 기준1</td><td>통합사회 – 8.세계화와 평화
[10통사08-01] 세계화 양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고, 세계화 시대에 나타나는 문제를 조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제안한다.</td><td>(다), (라), (마), (2)의 <보기></td></tr>
<tr><td>성취 기준2</td><td>통합사회 – 8.세계화와 평화
[10통사08-02] 국제 갈등과 협력의 사례를 통해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의 역할을 파악하고,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한다.</td><td>(가), (나), (5)의 <보기></td></tr>
</table>

나) 자료 출처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통합사회	구정화 외	천재교육	2018	246, 252-257쪽	본문	O
종교와 평화 그리고 무력 분쟁 –요한 갈퉁과 한스 큉의 이론 검증	김장생	신학사상	2025	172-175쪽	본문	O
미국-이란 충돌과 호르무즈 리스크: 공급망 시나리오 분석과 시사점	빙현지	산업연구원	2026	1-8쪽	본문	O
평화를 원한다면	최태현	경향신문	2026.4.5.	-	본문	O
보안법	강진갑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2022.11.21	-	본문	O
위험사회	울리히 벡 (홍성태 역)	새물결	2006	3-15쪽, 18-21쪽	본문	O
한국사 연대기: 일제의 무단통치, 일제가 조선의 주권을 탈취한 뒤 시행한 1910년대의 일상적인 군사지배체제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편찬	국사편찬위원회	2026.6.15. 검색	-	본문	O
Global peace under threat amid rising militarisation, inequality and weakening multilateralism, says UN expert	UN Human Rights	UN Human Rights	2026.6.17.	-	본문	O
파키스탄 폭우 사망자 최소 344명…탄소배출 1% 미만 나라가 맞은 기후위기 유탄	윤기은	경향신문	2025.08.17.	-	본문	O

[문항해설] 본 문항은 국제 사회의 복합적 의미와 이론적 관점들을 이해하고, 이를 현대 전쟁과 통제 사회의 문제에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우선 전쟁이나 테러와 같은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와 구조적 폭력까지 줄어든 상태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일제강점기의 정치·사회적 억압 사례를 갈퉁의 구조적 폭력 개념과 연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현대 전쟁이 단순히 물리적 폭력이 아닌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일 수 있으며, 에너지, 식량, 금융, 산업 등의 영역을 통해 국경을 초월한 문제로 확산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나아가 위험사회 이론을 바탕으로 전쟁으로 인한 위험이 사회적 약자와 취약 국가에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을 파악하고, 『멋진 신세계』에 나타난 통제 사회를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문화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위험사회에서 개인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1) 평화의 의미를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함

(2) 요한 갈퉁의 세 가지 폭력론 중 구조적 폭력의 개념을 구체적 역사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함

(3) 제시문 (마)의 군사적 긴장 사례를 바탕으로 갈퉁의 폭력론과 벡의 위험사회 이론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함. 갈퉁의 폭력론은 전쟁을 침공, 폭격과 같은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이를 정당화하는 문화적 폭력과 시민의 삶의 기회를 제한하는 구조적 폭력까지 포함하는 현상으로 설명함. 반면 벡의 위험사회 이론은 전쟁으로 발생한 위험이 에너지, 식량, 금융, 산업, 노동, 군사 안보 등의 영역을 통해 국경을 넘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복합적 위험임을 설명함

(4) <보기>에 등장하는 파키스탄의 기후위기 피해 사례를 (라)의 위험사회 이론에 적용하여, 위험이 사회적 약자와 취약 국가에 집중되거나 부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함. 위험사회 이론을 통해 기후위기의 원인과 피해가 국가 간에 불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으며, 위험 대응 능력이 낮은 국가와 계층이 더 큰 부담을 질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함.

(5) 제시문의 내용을 종합하여 『멋진 신세계』에 나타난 통제 사회를 평화와 폭력, 위험사회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함. <보기>의 사회는 전쟁, 빈곤, 심각한 갈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소극적 평화가 실현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계층과 역할이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지고 시민이 사회 질서에 순응하도록 관리된다는 점에서 적극적 평화가 실현된 상태라고 보기 어려움. 또한 '평화', '행복' 등의 언어가 차별과 통제를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문화적 폭력에 해당하고, 계층 배정과 조건화 교육은 개인의 삶의 기회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폭력에 해당함. 위험사회에서 개인이 기존 제도와 발전 방식이 낳는 위험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해 바꾸어 가야 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를 확인함.

[채점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	(나)에 나타난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쓸 수 있는지를 평가함 - ⓐ에 '소극적', ⓑ에 '적극적'이 정답임(각 2.5점) - 정답 이외에 다른 용어는 인정하지 않음(0점)	5점
2	<보기>의 일제강점기 사례를 (다)의 갈퉁의 폭력론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 - '구조적 폭력'이 정답임(5점) - 정답 이외에 다른 용어는 인정하지 않음(0점)	5점
3	현대 전쟁을 갈퉁의 폭력론과 벡의 위험사회 이론에 비추어 이해하고 서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	10점

	- 갈퉁의 폭력론이 전쟁을 물리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의 관점에서 설명한다는 점을 적절히 제시함(4점) - 벡의 위험사회 이론이 전쟁의 위험이 국경을 넘어 에너지, 식량, 금융, 산업, 노동, 군사 안보 등으로 확산된다고 설명한다는 점을 제시함(4점) - 두 이론의 차이를 '폭력의 정당화 및 재생산 구조'와 '위험의 초국경적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비교함(2점) - 글의 형식적인 부분(정서법, 서술 방법, 문체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주어진 분량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서술한 경우(140자 이하) 감점함(2점)	
4	<보기>의 사례를 통해 위험이 사회적 약자나 취약 국가에 집중되는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 (라)의 위험사회 이론을 바탕으로 전쟁 위험의 관리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 - 위험이 모든 집단에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고 사회적 약자와 취약 국가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음을 서술함(4점) - 현대 전쟁의 위험이 에너지, 식량, 금융, 산업, 노동, 군사 안보 등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설명함(4점) - 국가와 국제사회의 협력 또는 공정한 위험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함(2점) - 글의 형식적인 부분(정서법, 서술 방법, 문체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주어진 분량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서술한 경우(140자 이하) 감점함(2점)	10점
5	제시문 (가)~(라)를 종합하여 <보기>의 사회가 진정한 평화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를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 - 전쟁과 빈곤, 갈등이 적다는 점에서 소극적 평화가 실현된 듯 보이지만 적극적 평화가 실현된 사회는 아니라는 점을 설명함(5점) - '행복', '안정'이라는 담론이 통제를 정당화한다는 점을 문화적 폭력과 연결함(5점) - 계층 배정, 조건화 교육, 직업·감정·욕망 관리가 삶의 기회를 제한한다는 점을 구조적 폭력과 연결함(5점) - 위험사회에서 개인이 위험과 통제 방식을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함(5점) - 글의 논리성과 표현의 정확성이 부족하거나 핵심 개념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면 감점함(1점) - 글의 형식적인 부분(정서법, 서술 방법, 문체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주어진 분량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서술한 경우(350자 이하) 감점함(3점)	20점

예시답안

(1) ⓐ: 소극적, ⓑ: 적극적

(2) 구조적 폭력

(3) 갈퉁의 폭력론은 현대 전쟁을 침공과 폭격 같은 물리적 폭력, 시민의 교육, 의료, 생계 기회를 제한하는 구조적 폭력, 그리고 전쟁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폭력으로 설명한다. 반면 벡의 위험사회 이론은 전쟁의 위험이 국경을 넘어 에너지, 식량, 금융, 산업 등 여러 영역으로 확산되는 복합적 위험 현상이라고 본다.

(4) <보기>의 사례는 위험이 국경을 넘어 확산되지만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에너지, 식량, 금융 등의 문제와 같은 전쟁의 위험은 전쟁 수행국을 넘어 취약 국가에 더 큰 부담을 준다. 따라서 위험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지 않도록 국가와 국제사회가 협력해 이를 공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5) <보기>의 사회는 전쟁과 빈곤, 심각한 갈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소극적 평화가 실현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태어나기 전부터 계층과 역할이 정해지고, 교육과 소비를 통해 그 질서에 만족하도록 관리되므로 적극적 평화가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갈퉁의 관점에서 '행복'과 '안정'이라는 언어는 차별과 통제를 정당화하는 문화적 폭력이며, 계층 배정과 조건화 교육은 개인의 삶의 기회를 제한하는 구조적 폭력이다. 위험사회에서 개인은 국가가 불안과 질서의 명분으로 행사하는 통제와 위험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여론 형성, 시민 참여 등을 통해 제도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또한 타인의 자유와 권리 침해에도 관심을 갖고 연대해 행동해야 한다. 이러한 실천은 민주적 참여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지키는 성찰적 근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문항 6~11

[배점 : 50점]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가)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대학살의 책임을 인정해, 생존자와 이스라엘을 상대로 수백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출했다. 또한 콘라트 아데나워, 빌리 브란트 등의 독일 정치 지도자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사과하였다. 이렇듯 독일은 과거 세대의 잘못을 현재 세대가 책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은 역사적 부당 행위에 대한 사죄를 거부한다. 그 이유는 과거 세대가 저지른 잘못을 현재 세대가 사죄해서는 안 되며, 사죄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나) ㉠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에 기반을 두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노력에 의해 얻은 결과물에 대한 ( )을(를) 개인의 생명권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가치로 인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익의 추구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국가는 이러한 개인들의 삶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더욱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본다.
반면 ㉡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개인의 자아 정체성과 좋은 삶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을 공유하는 가운데 형성된다고 본다. 따라서 공동체주의자들은 사회 구성원인 개인은 이기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연대 의식을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 자발적인 봉사와 희생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본다.

(다) 롤스는 모든 사람은 동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의된 것이라면 정의롭다고 보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하였다. 그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려는 국가 역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 노직은 자유 지상주의의 입장에서 개인의 자유와 ( )을(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보는 ( )(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개인의 권리와 재산을 강도, 절도, 사기 등에서 보호하는 선에서만 행동하는 최소 국가를 정의롭다고 여긴다.

(라) 마르크스는 정의와 권리라는 언어의 사용을 그 자신이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우선 어떤 사회의 분배가 그 사회의 기본적인 생산과정들의 성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는 한 사회를 비판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그 생산과정에 대한 결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분배”와 “동등한 권리”에 관한 이야기는 시대에 뒤떨어졌으며, “이데올로기적인 허튼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마르크스는 새로운 사회에서 결핍과 갈등은 감소하여, 분배적 정의 원칙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가 정의와 권리 개념에 대한 의존을 필요하게 만드는 결함 있는 생산양식이라고 보았다.

(마) 정의는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이지만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시대, 사회, 학자마다 달라서 이 개념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나타난다.

㉮ 능력 기준의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체적, 정신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더 많은 분배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 분배 방식이 사람들의 성취동기를 높여 주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그 능력 중 일부가 우연적·선천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소외감을 유발하고 사회 불평등을 심화한다.

㉯ 업적 기준의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업적을 이룬 경우 더 많은 보상이, 그 반대의 경우에는 적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다만 기회의 평등을 실현한 상태에서 개인들이 자유롭게 경쟁하여 그 성과를 분배받는 것이 정의롭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성취동기를 제고하고 창의성과 같은 잠재능력을 개발하도록 해주지만, 과열 경쟁이 되거나 기회의 평등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경우, 업적에 대한 평가 기준의 어려움에 부닥칠 때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 필요 기준의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타고난 신체적 조건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차이, 혹은 인종, 지역, 가정 환경 등 외적 조건에 의한 교육과 훈련 여건의 차이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 입장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회의 평등을 넘어 결과의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는 다양한 복지제도와 사회안전망을 마련해 사회 불평등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개인의 성취동기를 저하시켜 경제적 비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가치 있는 재화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사람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

(6) (나), (다)의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3음절로 쓰시오. (3점)

(7)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3음절 단어를 (마)에서 찾아 쓰시오. (3점)

<보기>

다양한 (　　) 현상은 정의로운 사회로의 발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개인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　　)을 개선하는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가 대표적이다. 예컨대 고용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 저소득층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와 같은 공공 부조, 상담, 재활, 돌봄 등의 사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서 경제적 (　　) 완화에 도움이 된다.

(8) (마)의 ㉮는 (다)의 롤스와 노직 중 누구의 입장에 더 가까운지를 그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105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7점)

(9) (라)의 정의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 입장에서 (나)의 ㉠과 ㉡을 비판하시오. (105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7점)

(10) <보기>의 센의 주장이 (마)의 ㉮ ~ ㉱ 중 무엇에 더 가까운지를 그 이유와 함께 쓰고, 센의 입장에서 (마)를 참고하여 (다)의 노직의 주장을 비판하시오.
(140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10점)

<보기>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은 공공적 가치를 물질적 재화가 아닌, '재화와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재인식하여, '기본적인 잠재능력'을 강조했다. 잠재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열려 있는 '삶의 폭', 즉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의 범위를 말한다. '잠재능력'이란 구체적으로 적절한 영양을 얻는 것, 병에 걸리지 않는 것, 요절하지 않는 것, 문자를 읽을 수 있는 것,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것, 친구를 사귀는 것,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 등이다. 그중 '기본적인 잠재능력'의 범위는 이동, 의식주, 위생·의료, 물리적 안전, 초등교육 등으로 좁혀진다.

(11) <보기>의 두 입장이 (나)의 ㉠과 ㉡ 중 무엇에 더 가까운지를 그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또한 (가), (나)를 참고하여, <보기>의 전자의 입장에서 후자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비판하시오. (450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20점)

<보기>

철수 : 자부심과 수치심이란 윤리, 집단적 책임이란 윤리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사는 누구라도 미국독립선언서, 헌법,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 알링턴 국립묘지에 잠든 영웅 등을 존경하거나 감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국적 자부심을 느끼려면 세월을 뛰어넘어서 특정 집단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영희 :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이므로, 개인의 선택만이 자신을 강제하는 도덕적 의무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세대가 행한 잘못을 책임질 것인가는 책임을 지겠다는 현재 세대의 선택이나 동의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 독일인이 행한 잘못을 책임지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 독일인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답안 및 해설 등 문항카드 정보 (6~11)

[출제범위] 통합사회

[핵심개념 및 용어] 정의,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정의, 업적을 기준으로 하는 정의, 필요를 기준으로 하는 정의, 자유주의적 정의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

[출제의도] 정의(Justice, 正義) 및 불평등 개념과 그를 둘러싼 상이한 관점 또는 유형들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사회 현안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출제근거]

가) 교육과정 및 관련 성취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별책7」"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기준 1 통합사회 – 5. 사회 정의와 불평등 [10통사06-01] 정의가 요청되는 이유를 파악하고,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기준을 탐구한다.	(마), (10)
	성취기준 2 통합사회 – 5. 사회 정의와 불평등 [10통사06-02]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평가한다.	(가), (나), (다), (라), (11)
	성취기준 3 통합사회 – 5. 사회 정의와 불평등 [10통사06-03]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 방안을 탐색한다.	(7)

나) 자료 출처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통합사회	박병기 외	비상교육	2018	169-171, 175-179쪽	본문	O
통합사회	구정화 외	천재교육	2018	184, 196, 199쪽	본문	O
민주적 공공성	사이토 준이치	이음	2009	84-88쪽	본문	O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김영사	2010	293, 297, 326-328쪽	본문	O
맑스와 정의	앨런 E. 뷰캐넌	갈무리	2019	126-127, 140-141, 157쪽	본문	O

[문항해설] 본 문항은 정의(Justice, 正義)와 불평등 개념과 그를 둘러싼 여러 관점 내지 유형들을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문제이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개인의 자유로운 노력과 선택에 따라 얻게 된 가치에 대한 소유권을 절대적인 가치로 인정한다. 그중에서도 기회의 평등을 주장하는 입장은 공정으로서의 정의관, 자유지상주의적 관점을 주장하는 입장은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관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개인의 자아 정체성이나 좋은 삶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을 공유하는 가운데 만들어진다고 본다. 전자가 심화되면 극단적 이기주의로, 후자가 심화되면 차별적 연고주의로 갈 수 있다. 이처럼 본 문항은 다양한 사상가들의 정의관을 정확하게 이해 및 구별하고, 더 나아가 이를 사회 현안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이다.

(6) (나), (다)에 제시된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하나의 개념어를 도출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함

(7)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개념어를 (나)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함

(8) (마)에에 제시된 3가지 정의 관념을 이해하고,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갖고 있는 롤스와 노직의 입장이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고, (마)의 ㉮ 입장이 기회의 평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함

(9) (라)의 정의관이 자유주의적 혹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과 별개의 정의관으로서,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로서 정의 관념을 인식한다는 마르크스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함

(10) <보기>에 소개된 센의 '기본적인 잠재능력'이라는 것이 기회의 평등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제도나 교육제도를 통한 결과의 평등까지 지향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입장에서 노직의 주장을 (마)를 참고해 논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지를 확인함

(11) (가)와 관련된 <보기> 두 입장이 각각 공동체주의적 정의관과 자유주의적 정의관 중 무엇에 더 가까운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자의 입장에서 후자의 입장을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지를 확인함

[채점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6)	(나), (다), (마)는 근대 사회에서 정의 개념에 대한 학자나 사회에서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다루는 내용임 - 정답은 '소유권'임 - 본문을 통해 답안의 명확한 형식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오답으로 처리함(0점)	3점
(7)	<보기>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내용임. 불평등의 유형과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다룸 - 정답은 '불평등'임. - 문제에서 답안의 명확한 형식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불평등' 이외에는 오답으로 처리함(0점)	3점
(8)	(다) 제시문은 같은 자유주의적 정의관에도 크게 2가지 입장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내용임 (마)에서 제시된 정의는 불평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3가지 방안이므로, (다)에서 제시된 2가지 입장 중 어느 쪽에 가까운 지를 분류할 수 있어야 함 - 노직에 가깝다고 쓰지 않은 경우 오답 처리함(0점). 특히 롤스가 공동체주의자라고 오해할 수 있으나 엄연한 자유주의자이므로 복수 정답은 없음. - 단순히 노직에 가깝다고만 쓰고 이유를 쓰지 않을 경우 감점함(4점) - 이유의 경우 노직이 기회의 평등이나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지 않으면 감점함(2점) - 글의 형식적인 부분(정서법, 서술 방법, 문체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주어진 분량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서술한 경우(70자 이하) 감점함(1점)	7점
(9)	(라) 제시문은 앨런 뷰캐넌의『맑스와 정의』를 원문으로 함. 이 입장은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모두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으며, 새로운 생산양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정의 관념을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허상이라는 입장임 - 위와 같은 내용을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경우 만점을 부여함 - (라)가 어떤 입장인지 간단히 서술하지 않으면 감점함(2점) - (라)의 입장이 ㉠ 자유주의적 정의관이나 ㉡ 공동체주의적 정의관과 각각 충돌한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으면 부분 감점함(2점), 또한 (라)의 입장이 '자본주의' 사회의 결함을 비판한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으면 부분 감점함(2점, 총4점) - 글의 형식적인 부분(정서법, 서술 방법, 문체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주어진 분량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서술한 경우(70자 이하) 감점함(1점)	7점
(10)	<보기> 속 센의 입장은 단순한 기회적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재화와 사람 간의 관계성이 중요하다고 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차이나 외적 조건의 차이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잠재능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결과의 평등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음. 센의 입장은 기회의 평등을 주장하는 ㉰의 입장처럼 업적에 따라서 다른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보지 않으므로 ㉰가 정답이 될 수는 없음 - 센의 입장은 결과적 평등을 지향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이 정답임(3점) - <보기> 속 센의 주장, 즉 ㉱에 따라서 노직의 주장, 즉 ㉮를 비판하지 않을 경우 전체	10점

	감점함(5점). 단순히 <보기> 본문이나 (마)에서 제시된 '능력 기준의 정의', '필요 기준의 정의', '업적 기준의 정의', '잠재능력'만이 언급되는 경우도 감점함(3점). 썼지만 논리가 부족하거나 추상적인 경우도 부분 감점함(1점). - 글의 형식적인 부분(정서법, 서술 방법, 문체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주어진 분량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서술한 경우(105자 이하) 감점함(2점)	
(11)	<보기>는 마이클 샌델의『정의란 무엇인가』이며, 이에 따르면 영희는 자유주의적 정의관, 철수는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갖고 있음. 그렇다면 각각 (나)의 ㉠과 ㉡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음. - 철수가 ㉡, 영희가 ㉠이 아닌 답안은 모두 감점함(5점). 또한 각각 이유를 쓰지 않을 경우 부분 감점함(3점) - 철수에 따르면, 현재 소속감을 갖고 있는 공동체가 과거 저지른 일에 대해 개인이 자부심과 수치심을 갖고 있다면 응당 그것에 대해 책임 의식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자부심 및 수치심, 혹은 집단적 책임이란 용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부분 감점함(5점) - 또한 철수의 입장에서 영희에 대해 비판할 때, 이 맥락이 독일의 과거사 청산 등의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으면 감점함(5점) - 이외에 개연성 있는 내용을 서술했을 경우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점수를 인정함 - 글의 형식적인 부분(정서법, 서술 방법, 문체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주어진 분량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서술한 경우(350자 이하) 감점함(3점)	20점

예시답안

(6) 소유권

(7) 불평등

(8) (마)의 ㉮는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정의이다. ㉮는 ㉯와 달리 기회의 평등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다)에서 공정을 강조하는 롤스보다 소유권을 강조하는 노직의 입장에 더 가깝다.

(9) (라)의 정의관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의 개념이 이데올로기적 산물이란 견해다. 그에 따르면, (나)의 ㉠과 ㉡ 모두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결함을 반영하는 이데올로기적 허상에 가깝다.

(10) 센은 ㉯의 필요 기준의 정의를 주장한다. 센은 공공적 가치, 즉 정의가 '기본적인 잠재 능력'에서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노직은 능력의 우연성, 선천성을 고려하지 않아 사회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1) <보기>에서 영희의 입장은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가깝고, 철수의 입장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 가깝다. 그 이유는 영희의 경우 개인의 선택만을 강조하고 현재 세대의 의무는 과거 세대의 그것과 무관하다고 보기 때문이며, 철수의 경우 국가로 대표되는 특정 집단에 대한 개인의 책임감은 자부심과 수치심이란 윤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철수의 입장에서 영희를 비판하자면, 현대의 모든 인류는 국민의 범주에 속하므로, 개인의 자아는 그의 사회적, 역사적 역할과 지위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예를 들면, 독일인이 과거 유대인들을 집단학살한 사건에 대해 다른 나라 사람이어도 부당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오직 독일인만이 그 학살을 부끄러워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개인은 자기 공동체의 역사적인 도덕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과거 세대가 행한 잘못을 현재 세대가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